



남원소방서, 하트 세이버 인증서 수여식 개최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소중한 생명을 살린 김일두 소방경과 유민국 소방교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하트 세이버는 심장지나 호흡정지로 사망 위험에 처한 환자를 전문 응급처치를 통해 소생시키고, 후유증을 최소화한 공로가 인정된 소방관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으로, 환자가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병원 도착 전·후 의식 회복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회복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승현 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라며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 홍보물 배포

남원시 죽향동은 주민과의 '1일 1가구 소통 행정' 과정에서 제기된 쓰레기 배출 시간 홍보 필요성에 따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쓰레기 배출 시간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이며, 토요일은 배출을 자제해야 하고, 제작된 안내문은 각 가정, 상가, 공동주택 등에 배포되며,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1일 1가구 소상공민 의견을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한 적극 소통 행정을 실천하는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점숙 죽향동장은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소방서 구급대원 폭언, 폭행 근절 당부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행위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을 위해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용 웨어러블 캠 활용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 사고 발생 시 소방서특별사법경찰관 수사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고사례 공유 △폭행피해방지 매뉴얼·행동요령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지현 구급팀장은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군민의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태권도의 고장 무주에서 훈련하게 되어 영광”

올림픽 난민 태권도선수들, ‘2025 무주 태권도원 We Are The One 훈련캠프’ 참가



올림픽 난민 태권도선수 10여 명이 지난 22일 무주군청을 찾았다.

선수들은 태권도진흥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WT)이 함께 진행하는 ‘2025 무주 태권도원 We Are The One 훈련캠프’ 참가자들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만나 K-관광수도이자 태권도 성지 무주에 대해 환담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선수들은 “태권도의 나라, 태권도의 고장에서 진행하는 훈련캠프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다”라며 “환대에 주신 만큼 훌륭한 태권도 선수로 성장해서 모국에 꼭 메달을 안겨주고 싶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캠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후원으로 진행(8.11.~25.)되고 있으며 이란, 시리아, 부룬디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난민 선수 5명과 코치 2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모두 올림픽난민재단(ORF) 및 태권도박애재단(THF)의 장학금 수혜자 또는 아카데미 출신으로, 2028년 LA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22일에는 무주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합동 훈련을 받았다.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는 ‘무주태권도원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인류의 화합과 희망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번 훈련캠프를 보며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이번 캠프를 통해 난민 선수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병원 ‘제18회 환자안전의 날’ 행사 성황리 마무리

‘시작부터 안전하게’ 주제로… 안전활동 발표·체험 프로그램으로 초기 예방의 중요성 강조

전북대학교병원은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제18회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2008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이어져 온 환자안전의 날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병원 전 직원이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참여와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다.

‘시작부터 안전하게’를 주제로 병원 본관과 어린이병원 이동통로, 모약홀 등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담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요 행사는 △부서별 환자안전활동 발표와 우수사례 시상 △안전순간 포착 챌린지 △환자·보호자 대상 환자안전 교육 △포토존 및 참여형 이벤트 △미로찾기 이벤트 △환자안전지킴이 우수사례 공유 등이 마련돼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함께 안전문화의 의미를 나눴다.

특히, 부서별 ‘우리부서 안전활동 알리기’를 통해 활동 성과를 발표하며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했고, ‘안전순간 포착 챌린지’에서는 현장에서 환자안전을 실천하는 생생한 순간이 사진으로 공개됐다. 또한, 외래와 병동 현장에서 환자·보호자 교육이 병행돼 의료진뿐 아니라 내원객과도 환자안



전 문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양종철 병원장은 “환자안전은 하루, 한 번의 캠페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하는 기본이자 약속”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전북대병원은 앞으로도 환자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가며 안전문화 정착과 의료 신뢰성 향상에 힘을 계속하겠다. /오상근 기자



고창소방서, 함께하는 청렴ON 릴레이 캠페인 실시

고창소방서는 최근, ‘청렴ON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며 청렴한 공직사와 구현과 투명한 행정 실현을 다짐했다.

이번 캠페인은 ‘깨끗한 소방, 군민이 신뢰하는 소방’이라는 목표 아래 진행됐다.

직원들은 청렴 구호가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약속하며, 일상 속 청렴 실천을 생활화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고창소방서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소방행정 정착을 위해 △금품·향응 수수 근절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책임 있는 민원 응대 등 5대 청렴 실천사항을 공유하며, 조직 내부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정욱 고창소방서장은 “청렴은 모든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군민 신뢰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고창소방서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소방행정을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신뢰받는 소방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 진봉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우울 예방 교육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2층 대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여유런터우렁) 사업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노인 우울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최예지 강사가 진행했으며, 노년기 우울에 대한 이해와 스트레스 관리법 및 우울증 예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은 정신 건강의 중요성과 우울증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유석 진봉면장은 “이번 교육이 어르신들의 삶에 건강과 행복을 더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봉남면 지사협, 독거노인에게 반려화분 제공

김제시 봉남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허영희)가 지난 20일과 22일 총 3회에 걸쳐 관내 독거노인 80명에게 반려화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사협의 ‘독거노인 반려화분 만들기 지원사업’은 독거노인들이 나만의 화분을 직접 만들어 반려식물로 키우는 사업이다. 화분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통해 눈과 손의 협응력 발달과 시각과 후각에 자극을 주어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체험행사는 원예치유 전문강사의 지도아래 신덕마을 등 3개 마을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공기정화식물 화분을 만들었으며, 이후 본인이 만든 화분을 각 가정으로 가져가서 반려화분으로 키우게 된다.

허영희 민간위원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성희 봉남면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고독감과 우울감 해소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